

'춘포 1914 : 사수(泗水)하라'

익산시, 11월 4~5일 춘포역·만경강 등 배경... 온·오프라인 결합한 게임 관광 프로그램

익산시의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해 오프라인형 대규모 역할 수행 게임(MMORPG) 프로그램인 '춘포 1914 : 사수(泗水)하라'를 오는 11월 4~5일 춘포면 일대에서 선보인다.



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참가와 동시에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시간 여행자가 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시작점인 만경강에서 생태·환경 체험 활동을 통해 과거로 가는 춘포행 열차티켓을 얻고, 1914년 춘포역으로 돌아가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비밀

활동을 하게 된다.

실감 나는 게임 연출을 위해 도우미(NPC-게임 안에서 플레이어에게 퀘스트 등을 제공하는 도우미 캐릭터)를 공간보다 배치했다. 이 역할은 지역주민들과 배우들이 직접 맡는다. 시대적 배경을 연출하기 위한 시설물과 소품 등을 활용해 1900년대 초 춘포면의 낭만을 담을 예정이다.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치는 실제 화폐와 교환해 주변 상가의 특산물, 먹거리, 유료 체험에 활용하거나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춘포라는 지역이 익산시 근대 역사와 생태·환경의 중심이 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과 펜싱 종목에 전북 대표로 참가해 다시 한번 익산시의 명예를 드높였다.

"흘린 땀방울만큼 기쁜 메달"

익산시, 제104회 전국체전서 금4·은2·동3 수확

익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과 펜싱 종목에 전북 대표로 참가해 다시 한번 익산시의 명예를 드높였다.

익산시 소속 선수들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앞서 폐막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 우수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여느 대회보다도 치열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상 신소망 선수는 여자 800m와 여자 1500m를 제패, 대회 2관왕에 올랐고, 남자 세단뛰기 국가대표 유망인 선수와 여자 사브르 국가대표 최지영 선수도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원반던지기 국가대표 신유진 선수와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 출전한 권영준·정병찬·양운진·구영모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남자 1500m 김용수 선수, 남자 해머던지기 황미르 선수, 여자 1600m 릴레이 신소망 선수가 귀중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주형 익산시청 육상팀 감독은 "전국체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선전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했다. 이수근 펜싱팀 감독은 "크고 작은 부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전을 펼쳐 준 선수들이 고맙다"고 대회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익산시 선수단의 꾸준한 성적은 지도자들의 뛰어난 지도력과 선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농촌주민 소득증대 도모"

환경보존 익산시의회의 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농어촌지역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의회의 환경보존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관내 마을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들이 100% 출자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이

격기준을 50% 완화 적용하도록 해 무분별한 외부유입을 방지하고 고령화되는 마을의 수익창출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최근 전력생산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공동 사업 등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어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환경보존 의원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해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한다"며 "마을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농촌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서 전국 120개 로컬기업 도시재생 新패러다임 머리맡대

군산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행정안전부(사)로컬브랜드포럼 소통협력센터 군산과 협업체 근대건축관 일대에서 '2023 로컬브랜드 포럼 in Gunsa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대정신 로컬을 주제로 브랜드가 되는 로컬 지방시대로 가는 길, 로컬 기업가 정신 로컬브랜드 포럼 프로그램, LBF 2023 EXHIBITION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국내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대표 120여 명과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 중기부 등이 여러 파트를 나누어 포럼을 진행했다.

행사가 이뤄지는 장미공원장 및 군산 근대건축관 일대를 하나의 동네처럼

구성해 포럼스페이스, 야외 전시관, 푸드존 형태로 구성하여 로컬의 감성을 담았고, 세션과 전시 이외에도 군산만의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로컬푸드존과 로컬 도시를 탐험할 수 있는 '로컬 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이목을 끌었다.

이번 포럼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그룹 100여 개 이상이 참여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통적인 지역발전 방식이었던 대기업 투자유치와 대규모 SOC 시설 유치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소생활권인 골목민의 차별화된 로컬문화 조성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

을 변화해야 한다는 '로컬브랜드'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로컬브랜드포럼 홍주석 이사는 "이제 로컬은 대안이 아닌 필수"라며 "로컬의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군산에서 정부와 전국 로컬기업들이 나눈 의미 있는 담론이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과거 산업시대에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서술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감성과 가치를 소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로컬문화, 골목이 있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며 "군산만의 감성과 따뜻한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가을철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주의

군산시 보건소가 최근 농작업 및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며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대표적이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릴 경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으며, 가을철(9월~11월)에 많이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쯔쯔가무시증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림프절 종대 등이 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발열, 오심,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진드기에 물린 부위는 시 간이 경과하면 가피(검은 딱지)로 변

하는 특징이 있다.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며, 농작업 풀베기, 산나물 채취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밝은색의 긴옷 착용, 모자 등 착용,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 기피, 제 사용, 귀가 즉시 옷을 털어서 세탁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증후군출혈열은 들쥐의 배설물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 또는 상처에 유입되어 발생하며, 고열, 오심, 출혈, 신부전 등 증상이 있다. 농업·축산 종사자, 군인 등은 집중하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유료로 집중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제6회 건축문화상 추진

군산시가 오는 11월 중 제6회 군산시 건축문화상을 추진한다.

건축문화상은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한 행사로 지난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행,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건축문화상 대상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사용승인된 관내 모든 건축물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수상은 일반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뉘며 금상, 은상, 동상 각 3점씩 총 6점에 대해 이뤄진다. 설계자에게는 상패 및 시상금, 시공자에게는 상패,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기념 동판을 수여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 식당가 다문화가족 자립 꿈터

익산글로벌문화관에 입점한 식당가가 지역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꿈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익산글로벌문화관에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입점한 △삼립타이(태국) △식백미(중국) △유엔아이(베트남) 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모두 익산에 사는 결혼이주 여성이 직접 운영하는 곳들이다.

시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창업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 조성 때부터 식당이나 카페 운영을 위한 실내장식과 부대시설 등을 지원했다. 여기에 저렴한 임대료(연 130~350만 원)로 창업 문턱을 낮췄다.

또 익산글로벌문화관 초·중·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해 단체 방문 시 도시락과 간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이로움 결제 시 10%를 추가 적립해주는 등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